

이일순 여사님께,

며칠 전 아침, TV에서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아주 내장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가끔은 거짓말 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여사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싫은 소리 많이 들으셨지요? 수고해 주셨는데 아무 보답도 못해 드리고 책망만 듣게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보기에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집안은 모두 평안하신지요? 또 장사는 잘 되는지요? 여사님 장사도 장사려니와 이웃 사람들 장사가 잘 되어야 여사님도 마음이 편할 텐데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주 재래시장에 가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박수를 많이 받았답니다. 일반 여론의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어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지만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욕을 먹을까 두려워서 할 일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면 당장은 불편하고 인기가 없는 일이라도 꼭 하려고 합니다.

요즈음 대학 입시 문제를 놓고 시끄럽지요? 무척 힘이 든답니다. 일부 대학과 신문이 '대학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몇몇 잘 나간다는 대학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일부 신문이 형편 좋은 사람들 생각만 대변하는 바람에 힘이 드는 것이지요.

저도 출세하면 할 만큼 한 사람이라 저나 제 아이들의 형편으로만 본다면 일류대학과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간다고 우리 손주들이 손해 볼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 편한 대로만 가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지켜 나가려고 하니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다 할 수가 없네요. 답답하기는 하지만 결코 용기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것이고요, 잘 할 것입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가장 잘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제 편 들어 주실거지요?

마치면 고향으로 갈 겁니다. 그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07년 7월 16일

대통령 노무현